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이 시설보호아동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시설 또래애착과 학교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김 현 진¹⁾

김 선 회²⁾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이 시설보호아동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시설 또래애착과 학교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부산 소재의 7개 양육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 215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과 AMO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으며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또한 Pearson 상관분석과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 시설 또래애착, 학교 또래애착 그리고 시설보호아동의 탄력성 간에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둘째,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과 시설보호아동의 탄력성 간의 관계에서 시설또래애착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이 시설보호아동의 탄력성 간의 관계에서 학교또래애착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은 학교또래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시설또래애착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함께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시설보호아동이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 발달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시설체계 내에서의 긍정적 양육환경 마련과 더불어 시설 내 또래애착 증진을 위한 환경 구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시설보호아동, 심리적 양육환경, 시설 또래애착, 학교 또래애착, 탄력성

* 본 연구는 2017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1)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2) 교신저자 :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E-mail: kremedy@pusan.ac.kr)

I. 서 론

보건복지부(2016)가 발표한 아동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으로 아동양육 시설에 입소한 아동 수는 전국에 12,821명에 이른다. 시설보호아동은 가족해체 경험으로 인해 정서적 불안과 두려움을 보이며(성미영, 설경옥, 2012), 일반적인 가정 안에서 생활하지 못한다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소외감을 느낀다(홍수현, 김경희, 2005). 이로 인해 시설보호아동은 일반가정아동과 비교하여 더 많은 행동문제(성미영, 2006)를 보이고, 사회적 기술 수준이 낮으며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정서조망 능력 또한 낮다(권세은, 이순형, 2002). 이러한 연구들은 시설보호아동이 일반 가정아동에 비해 얼마나 취약한지 확인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부정적 편견 또한 부각되어 시설보호아동이 긍정적 발달을 성취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연구들은 시설보호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심리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적응을 성취하는 시설보호아동이 있음을 보고하며(강명진, 2010; 강은진, 2007; 김상미, 2001), 동일한 역경과 스트레스를 경험함에도 그들의 적응 양상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역경과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개인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능력 혹은 성공적인 적응(Rutter, 1983)을 뜻하는 ‘탄력성(resilience)’은 시설보호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설명하는데 적절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보호아동의 부적응적인 행동양상 보다는 건강하게 적응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춘 긍정적인 특성인 ‘탄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시설보호아동의

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아 이들의 긍정적 발달을 도모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고, 통제력과 자발성 수준이 높으며 부정적 감정에 대한 인내심이 강하고 타인과 긍정적인 지지관계를 유지한다(주소영, 이양희, 2007). Werner(1993)는 카우아이 섬에서 실시한 40년간의 종단 연구를 통해 아동의 탄력성이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증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특히 주변의 환경 특성과 대인관계는 탄력성을 증진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임을 밝혔다. 따라서 시설보호아동의 탄력성 또한 그들이 생활하는 시설의 특성과 대인관계적 특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보호아동은 가정에서 적절한 양육을 받기가 어렵고 가정의 역할을 시설에서 대신 보완해주고 있으므로 그들의 건강한 성장과 적응을 위해서는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은 시설교사를 포함한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및 심리적·정서적 자원, 아동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책임을 강조하는 시설 내의 전반적인 생활 풍토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 수준이 높을수록 시설보호아동에게 성취를 기대하고 격려하고,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책임을 강조하며, 시설구성원 간에 시간과 활동을 더 많이 공유하고, 친밀감 수준이 높다.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에 대해 시설보호아동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심리사회적 부적응 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이서정, 2001), 학교생활은 보다 적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오유정, 문혁준, 2014).

한편 초등학교 고학년은 초기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시기로 부모-자녀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많은 시간을 또래와 함께 보내면서 또래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기이다. 또래간의 정서적인 유대관계는 아동으로 하여금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갈등 수준을 낮춤으로써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보호요인의 역할을 한다는 연구(Laible, Carlo, & Roesch, 2004)는 이 시기 아동의 또래애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아동의 또래애착은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다(위중희, 조규판, 2014).

시설보호아동에게 또래는 형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시설의 또래와 학교에서 관계를 맺는 학교의 또래가 있다. 어머니와의 애착형성만이 아동의 발달을 예측하는 유일한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Goossens & Ijzendoorn, 1990; Howes & Hamilton, 1992) 이후, 연구자들은 시설보호아동이 여러 환경에서 다양한 대상과 맺는 애착형성에 주목해왔다. 시설 또래애착은 함께 생활하는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양상을 의미하는데, 일반가정의 형제관계와 유사하다.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또래와의 애착은 시설 생활의 안정감을 도모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험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지탱해주는 요인이 된다(강명진, 2010). 시설보호아동에게 시설만큼 중요한 환경인 학교에서의 또래애착 또한 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 학교 또래애착은 시설이 아닌 학교에서 관계하는 또래들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양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교 내에서의 긍정적인 또래와의 교류는 일반가정아동의 사회적 적응능력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김정민, 2009; 최지만,

2014), 시설보호아동의 탄력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인(강명진, 2010; 김형태, 2012)임이 밝혀졌다.

이처럼 심리적 양육환경, 시설 또래애착과 학교 또래애착은 각각 개별적으로 시설보호아동의 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심리적 양육환경은 시설 또래애착과 학교 또래애착을 통해 탄력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이 시설보호아동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시설 및 학교 또래애착의 매개적 역할을 경험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시설보호아동의 적응에 관한 몇몇 연구들(Barone, Dellagiulia, & Lionetti, 2016; Lionetti, Pastore, & Barone, 2015; Mota, Costa, & Matos, 2016; Stein, 2006)은 시설보호아동이 생의 초기에 경험하는 부모상실 및 시설 입소 후 경험하는 불안정한 양육패턴이 이후의 적응 문제에 가장 근원적인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Bowlby(1969)의 애착이론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모성박탈(maternal deprivation) 혹은 구조적 학대(structural neglect)로 알려진 주 양육자의 부재는 아동양육시설의 집단적 양육방식 및 양육자의 잦은 교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시설보호아동에게 있어 의미 있는 타인과의 안정적인 애착형성은 그들의 긍정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초기청소년기의 또래애착(Holmes, 1997)은 그들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애착대상과의 반복적인 경험으로 형성되는 자신과 애착대상, 애착관계에 대한 지식들로 구성되는 내적작동모델(Rothbard & Shaver,

1994: 김우경, 방희정, 2015에서 재인용)은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확대되는 사회적 관계인 또래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따뜻하고 수용적이며 애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형제관계에서 유대감을 느끼게 하고(김은아, 1997), 어머니와 자녀간의 정서적 친밀감은 온정적이고 친밀한 형제관계에 영향을 미친다(최하나, 2011)고 하였다. 따라서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은 시설에 함께 거주하는 또래와의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시설 또래애착이 시설보호아동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정선옥, 2002; 좌문경, 2009; 주소영, 2008)을 밝힌 선행연구들을 고려하면,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은 시설보호아동의 탄력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설 또래애착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또래애착도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육자의 자율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이 학교 상황에서 또래와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는 것에 영향(왕해옥, 김광웅, 2004; 이지윤, 2000)을 미쳤다.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이 긍정적일수록 학교 또래애착을 잘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교 또래애착이 시설보호아동의 탄력성을 증진시킨다는 선행연구들(강명진, 2010; 김정미, 2014; 김형태, 2012)을 통해 심리적 양육환경이 시설보호아동의 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학교 또래애착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은 시설 또래애착과 학교 또래애착간의 관련성이

다. Dunn(1988)은 아동이 형제와 우호적으로 상호작용을 할수록 또래간의 협동성이 높아짐을 밝힘으로써 이월모델(carryover model)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월모델에 따르면 가정에서 형제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아동은 다른 환경에서 만나는 또래와도 안정적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긍정적인 시설또래와의 애착형성이 학교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안정적인 또래애착을 도와 시설보호아동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 시설 또래애착과 학교 또래애착은 시설보호아동의 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은 시설 또래애착과 학교 또래애착을 통해 탄력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즉,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에 대해 긍정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각한 아동들이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또래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이는 다시 학교장면에서의 원만한 교우관계를 의미하는 학교 또래애착을 안정적으로 형성하여 시설보호아동의 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 시설 또래애착과 학교 또래애착이 시설보호아동의 긍정적 적응의 한 요소인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시설 또래애착과 학교 또래애착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시설보호아동의 긍정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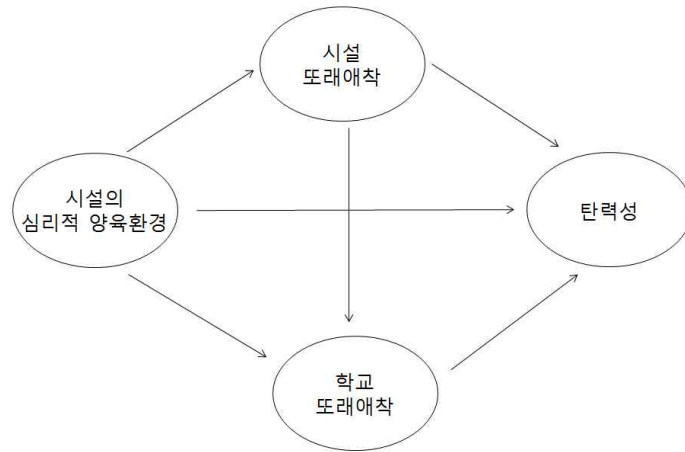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그림 1의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 학교 또래애착, 시설 또래애착, 시설보호아동의 탄력성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이 시설보호아동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시설 또래애착과 학교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보건복지부(2016)의 ‘2016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 보고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아동양육시설은 243개소이며 그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은 12,821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서울지역의 아동양육시설

2개소와 부산 지역의 아동양육시설 5개소, 총 7개소를 임의표집 하였으며,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 10세부터 12세에 해당되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 21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고학년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Holmes(1997)의 애착발달과정에 의하면 이 시기는 애착대상이 주 양육자인 부모로부터 교사나 또래등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로 넘어가는 시기이다. 둘째,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로 또래관계 중 동성 친구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의 욕구가 증가하며 단짝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이다. 이와 같이 이 시기에는 주 양육자와의 애착뿐만 아니라 또래와의 애착이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215)

변인	구분	빈도(%)
학년	4학년	43(20.0)
	5학년	61(28.4)
	6학년	111(51.6)
성별	남아	114(53.0)
	여아	101(47.0)
입소연령	5세 미만	169(78.6)
	5세 이상~10세 미만	32(14.9)
	10세 이상	14(6.5)
시설 거주기간	5년 미만	14(6.5)
	5년 이상~10년 미만	32(14.9)
	10세 이상	169(78.6)

2. 측정도구

탄력성

시설보호아동의 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주소영과 이양희(2007)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아동용 탄력성 척도(The Resilience Scale for Children, RSC)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자기 효능감, 부정적 감정의 인내, 긍정적 지지관계, 통제력, 자발성의 총 5개이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해낼 만큼 충분한 힘을 갖고 있다’ 등 자기효능감을 기술하는 8개의 문항, ‘나는 어려운 일을 겪은 후에도 빨리 회복하는 편이다’ 등 부정적 감정의 인내를 기술하는 8개의 문항, ‘나 혼자 힘으로 무엇인가 해내었을 때 그 일로 칭찬 받는다’ 등 긍정적 지지관계를 기술하는 4개의 문항, ‘방해를 받아도 내가 관심을 가진 일에 계속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등 통제력을 기술하는 6개의 문항, ‘나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 한다’ 등 자발성을 기술하는 4개의 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용 탄력성 척도(RSC)는 응답자가 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표기하도록 하는 자기보고형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탄력성 척도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고, 하위 요인 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특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본 도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자기효능감 .89, 부정적 감정의 인내 .86, 긍정적 지지관계 .79, 통제력 .79, 자발성 .62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95이었다.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형태(1989)의 ‘가정의 심리적 환경 척도’를 정선욱(2002)이 시설보호 기관에 적용 가능하도록 수정한 것을 오유정과 문혁준(2014)이 아동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하위요인은 성취, 공유활동, 성원들 간의 관계, 개방·자율의 4개 요인이다. 성취 요인은 아동에게 높은 기대수준을 설정하고 달성하기를 격려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5개 문항, 공유활동 요인은 시설 구성원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과 활동이 관련되는 것으로 5개 문항, 성원들 간의 관계 요인은 시설 구성원들 간의 서로에 대한 관심이나 친밀감, 응집력 등과 관련된 것으로 13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또한 개방·자율 요인은 주변 타인 및 사물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기대하며 일상에서 아동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양육환경을 의미하는 7개 문항, 총 30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도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성취 .80, 공유 활동 .84, 성원들 간의 관계 .93, 개방·자율 .72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94이었다.

시설 또래애착 및 학교 또래애착

시설 또래애착과 학교 또래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애착 척도(The Inventory of Parents and Peer Attachment, IPPA)의 1991년 개정본 (IPPA-R)을 변안한 옥정(199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요인은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 3개 요인이며 총 25문항이다. 의사소통 요인은 친구가 나의 감정을 존중하며 친구와 대화 시에 자신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지에 관한 것으로 10개 문항, 신뢰감 요인은 고민이 생겼을 때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친구를 나의 지지자원으로 생각하는지를 묻는 8개 문항, 그리고 소외감 요인은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친구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주변의 관심이 없으며 내가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등을 묻는 7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친구(나와 같이 살고 있는 친구)와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같은 반 친구이면서 시설에서 같이 살지 않는 친구)에 대해 각각 평정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시설 또래애착의 경우, 의사소통 .85, 신뢰감 .87, 소외감 .89였으며 전체 신뢰도는 .91이었다. 학교 또래애착의 경우, 의사소통 .86, 신뢰감 .83, 소외감 .80이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92였다.

3. 자료수집 절차

자료 수집을 위해 2016년 8월부터 10월까지 서울과 부산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에 본 연구자가 직접 전화하여 협조를 부탁하였으며, 이 중에서 시설장이 조사를 허락한 7개의 아동양육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질문지를 전달하고, 작성이 완료된 후 회수하였다. 총 배부된 질문지 235부 중에서 225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응답이 다수 누락되거나 무성의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총 215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과 AMO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고,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측정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고,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과 아동의 탄력성 간의 관계에서 시설 또래애착과 학교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들 간의 기술 통계 및 관련성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 시설 또래애착, 학교 또래애착, 탄력성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의 평균이 3.17, 시설 또래애착의 평균이 3.46, 학교 또래 애착의 평균이 3.55, 그리고 탄력성의 평균은 3.85로 모두 중간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인의 왜도는 절대값 3을, 첨도는 절대값 10을 초과하지 않아 정규분포성을 가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요 변인들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은 아동의 시설 또래애착($r = .38, p < .01$), 학교 또래애착($r = .42, p < .01$), 탄력성($r = .67, p < .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아동의 시설 또래애착은 학교 또래애착($r = .60, p < .01$), 탄력성($r = .43, p < .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학교 또래애착과 탄력성 간에도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r = .46, p < .01$).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 학교 또래애착, 시설 또래애착, 탄력성 간에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값은 0.59~0.79로 0.10이상, VIF값은 1.25~1.67으로 10이하로 주요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자가 가정한 매개모형을 검증하기에 자료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N = 215)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	3.17	.52	-.22	.02
시설 또래애착	3.46	.60	-.10	-.14
학교 또래애착	3.55	.57	-.34	-.01
탄력성	3.85	.71	-.28	-.61

표 3.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N = 215)

변인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	시설 또래애착	학교 또래애착	탄력성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	1			
시설 또래애착	.38**	1		
학교 또래애착	.42**	.60**	1	
탄력성	.67**	.43**	.46**	1

** $p < .01$.

2.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 검증

우선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χ^2 검증은 표본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TLI, CFI, RMSEA를 함께 고려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χ^2 값은 106.03($df = 79, p < .023$), TLI는 .90, CFI는 .92, RMSEA는 .04(90% 신뢰구간에서 .01~.05)로 수용 가능한 모델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해 TLI, NFI, CFI, RMSEA 지수를 분석하였다. TLI는 .96, CFI는 .97, RMSEA는 .06로 적절한 구조모형의 기준을 충족시켰다. 연구모형에서 각 변인 간 경로계수는 표 4와 같다.

연구모형에서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시설 또래애착($\beta = .43, p < .001$),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탄력성($\beta = .62, p < .001$),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학교 또래애착($\beta = .28, p < .001$), 시설 또래애착→학교 또래애착($\beta = .45, p < .001$), 시설 또래애착→탄력성($\beta = .22, p < .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적

경로가 나타났다. 학교 또래애착→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로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외하여 그림 2와 같이 수정모형을 설정하였다.

두 모형 간 자유도의 차이가 1인 경우, χ^2 의 임계치가 5.99보다 작으면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간명한 모델을 채택할 수 있다(홍세희, 2000).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수정모형 간의 χ^2 의 차이는 0.23으로 두 모형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학교 또래애착에서 탄력성으로 가는 경로를 제거하여 더욱 간명한 수정모형을 그림 3과 같이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최종모형에서 각 변인 간 경로계수는 표 5와 같다. 주요 변인들 간의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은 시설 또래애착에 직접적인 영향($\beta = .43, p < .01$)을 미치고, 학교 또래애착에는 직접적인

표 4.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N = 215$)

경로			B	β	S.E.	C.R.	p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	→	시설 또래애착	.75	.43	.13	5.79	***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	→	학교 또래애착	.38	.28	.09	4.11	***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	→	탄력성	1.05	.62	.12	8.34	***
시설 또래애착	→	학교 또래애착	.35	.45	.05	6.72	***
시설 또래애착	→	탄력성	.21	.22	.06	3.37	***
학교 또래애착	→	탄력성	.04	.03	.08	.48	.62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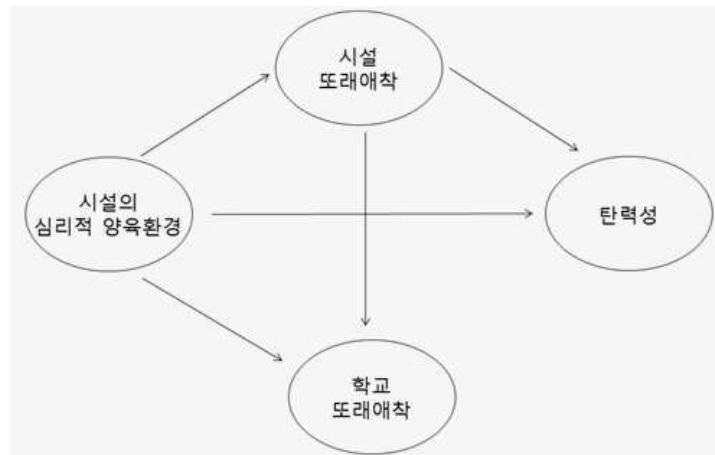


그림 2. 수정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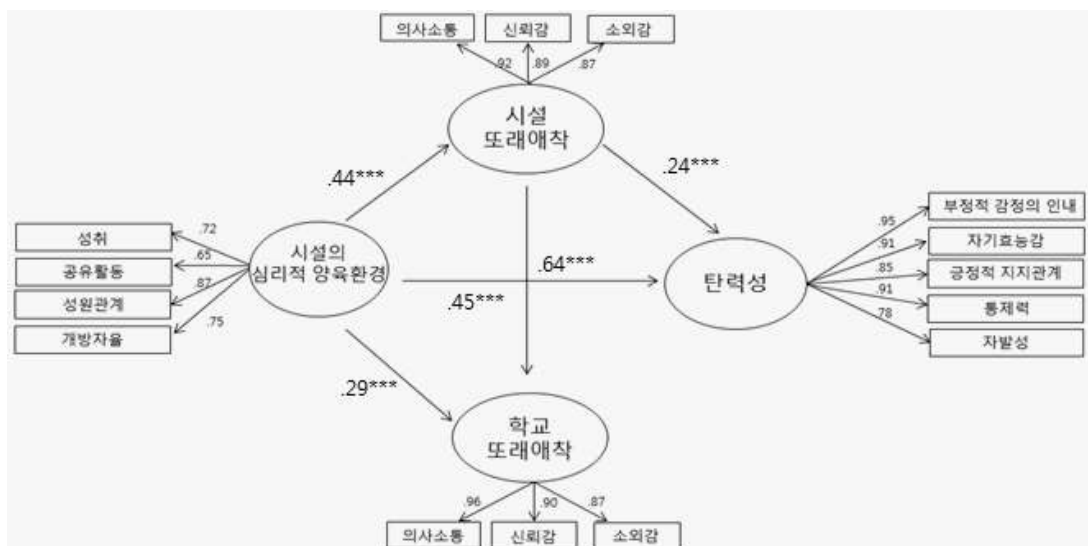


그림 3. 최종모형

*** $p < .001$.

영향($\beta = .28, p < .05$)과 시설 또래애착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beta = .20, p < .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탄력성에도 직접적인 영향($\beta = .62, p < .05$)과 시설 또래애착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beta = .11, p < .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시설 또래애착은 학교 또래애착($\beta = .45, p < .01$)과 탄력성($\beta = .22, p < .05$)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N = 215$)

경로		B	β	$S.E.$	$C.R.$	p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	→ 시설 또래애착	.75	.44	.13	5.79	***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	→ 학교 또래애착	.39	.29	.09	4.11	***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	→ 탄력성	1.07	.64	.12	8.83	***
시설 또래애착	→ 학교또래애착	.35	.45	.05	6.71	***
시설 또래애착	→ 탄력성	.21	.24	.06	4.03	***

*** $p < .001$.

표 6. 구조모형의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N = 215$)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	→ 시설 또래애착	.43**	.43**	-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	→ 학교 또래애착	.48*	.28*	.20**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	→ 탄력성	.73**	.62*	.11*0
시설 또래애착	→ 학교 또래애착	.45**	.45**	-
시설 또래애착	→ 탄력성	.23*	.22*	.01

* $p < .05$. ** $p < .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시설보호아동이 지각한 심리적 양육환경과 시설 또래애착, 학교 또래애착 그리고 탄력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심리적 양육환경과 탄력성의 관계에 있어 시설 또래애착과 학교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시설보호아동의 탄력성 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첫째,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 시설 또래애착, 학교 또래애착 그리고 시설보호아동의 탄력성간의 관계에서 모두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

다. 이는 시설의 긍정적인 심리적 양육환경 특성들이 시설보호아동의 탄력성 발달을 촉진 시키고(강명진, 2010; 강은진, 2007; 김정민, 2009; 오유정, 문혁준, 2014), 시설 또래애착과 학교 또래애착 모두 탄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정민, 2009; 김형태, 2012; 좌문경, 2009)는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시설보호아동의 탄력성에는 아동에게 높은 포부수준을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시설 구성원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친밀감과 응집력이 높은 시설의 양육환경과 시설과 학교에서의 또래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존중받고 이해받는 안정적인 또래애착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과 시설보호 아동의 탄력성간의 관계에서 시설 또래애착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은 그 자체로 아동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시설의 긍정적인 양육환경이 시설 내 긍정적 또래애착을 형성시켜 시설보호아동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역경을 딛고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시설보호아동의 또래지지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시설의 긍정적인 양육환경의 특성들이 시설 내 또래관계를 안정적으로 형성하게 하고(이서정, 2001; 허상환, 2003), 이러한 시설 또래와의 긍정적 지지관계는 어려운 상황에서 적응하는 탄력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들(강명진, 2010; 여은선, 2005; 이재술, 2008)과 일치한다. 또한 시설청소년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체계적 보호요인을 밝힌 강명진(2010)의 연구에서도 시설체계에서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 시설 내 또래의 지지가 탄력성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함께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과의 유대관계가 탄력성에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시설 또래애착은 시설보호아동에게 가장 가깝고 친밀하며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중요한 환경자원이자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보호아동이 어려운 역경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인내하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자기효능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시설 내 또래 간에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서로에 대한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개방

적이고 자율적이며 친애적인 시설의 심리적 환경을 제공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이 시설보호 아동의 탄력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예상과는 달리 학교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학교 또래와의 긍정적 유대관계보다 시설 또래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시설보호아동의 탄력성에 미치는 과정에서 상대적인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결과이다. 권세은과 이순형(2002)의 연구에서 시설보호아동은 일반가정아동에 비해 학교또래와의 관계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또래의 집에 놀러가는 횟수가 적으며 인기가 좋지 않고 장기자랑 시간에도 잘 참여하지 않아 학교 또래사이에서 위축을 경험한다고 보고하며 일반가정아동과 시설보호아동의 또래관계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성미영(2006)의 연구에서 시설보호아동이 학교의 친구와 피해의식으로 사회적 관계를 잘 맺지 못하지만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과는 밖에서 더욱 결속력을 보인다는 특징을 밝힌 결과와도 부분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와 연결지어보면, 학교 또래는 일과의 일정시간만을 서로 공유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에 비해 시설 또래는 가족을 대신하여 아동의 삶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시설의 또래가 아동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설보호아동의 탄력성은 학교에서 관계하는 또래보다 비슷한 역경상황을 공유하고 위로할 수 있는 시설 또래애착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은 학교 또래

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시설 또래애착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함께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양육환경이 긍정적일수록 학교 또래와의 애착을 형성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시설 환경에서 맺은 또래와의 긍정적인 애착경험이 학교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애착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결과이며 이는 형제 관계와 또래관계에서 설명하는 이월효과 모델을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시설보호아동의 심리적 양육환경과 학교부적응에 관한 허상환(2003)의 연구에서도 시설 내 의지할 또래가 있는 경우 학교에서의 긍정적인 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한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는 시설보호아동이 시설 내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애착을 형성하면 학교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신뢰로운 애착관계를 맺을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시설보호아동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시설보호아동과 관련된 시설 및 학교환경에서의 또래애착 및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이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였다. 시설보호아동의 탄력성 발달에는 개방적이고 자율적이며 구성원간의 응집력이 있는 시설의 긍정적 양육환경 특성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시설 또래와의 유대관계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보호아동이 역경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 시설 체계 내에서의 긍정적 양육환경을 마련함과 동시에 시설 내 또래와의 친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

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표집의 선택 편향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기술통계에 대한 일반화를 주의해야 하지만 본 연구의 초점은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 수준 자체가 아니라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과 탄력성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의미있는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본 연구는 시설보호아동의 탄력성에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인 지각이 밀접하게 관련 있다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아동이 스스로 지각한 보고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아동의 설문 작성과정 및 제출과정에서 시설장 및 시설교사들의 개입이나 검토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후속연구에서는 각 시설에 대한 객관적 측정을 따로 조사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명진 (2010). 시설청소년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체계적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은진 (2007). 시설보호청소년의 탄력성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세은, 이순형 (2002).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 아동의 사회적 기술, 정서조망 능력의 비교. 아동학회지, 23(2), 107-120.
- 김상미 (2001). 대구지역 시설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의식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일반

- 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우경, 방희정 (2015). 어머니의 불안과 학령 전 아동의 불안 및 우울간의 관계: 아동 애착 안정성의 조절효과. 인간발달연구, 22(4), 67-81.
- 김은아 (1997). 부모-자녀관계 및 아동의 기질과 형제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미 (2014). 그룹홈 청소년의 생활지도 교사와의 애착과 문제행동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회복탄력성과 또래지지를 매개로.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민 (2009). 경제적 소외계층 아동이 지각하는 심리적 가정환경과 사회적 지지가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태 (2012). 그룹홈 아동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자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8, 211-234.
- 보건복지부 (2016. 9. 13). 2016년 아동복지시설 현황.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에서 2017년 3월 26일 인출
- 성미영 (2006). 시설보호 여부에 따른 아동의 정서성 발달과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5(1), 17-29.
- 성미영, 설경옥 (2012). 시설보호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탐색. 아동교육, 21(2), 147-160.
- 여은선 (2005). 시설보호 청소년의 학교적응 향상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유정, 문혁준 (2014). 시설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아동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1(3), 69-87.
- 옥정 (1998). 청소년기 애착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Perceived Competence)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왕해옥, 김광웅 (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애착안정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1(2), 77-88.
- 위중희, 조규관 (2014). 아동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구조관계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8), 237-264.
- 이서정 (2001). 생활 시설 아동의 심리적 환경과 부적응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술 (2008). 시설생활청소년의 학교탄력성과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윤 (2000).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애착 및 사회성 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선옥 (2002). 가정외 보호를 받는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애착유형 및 또래관계에 관한연구. 사회복지연구, 20, 149-172.
- 좌문경 (2009).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소영 (2008). 아동학대와 탄력성의 관계에서 인지기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성균

- 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주소영, 이양희 (2007). 아동용 탄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초등학교 4-6학년용. *아동학회지*, 28(2), 91-113.
- 최지만 (2014). 빈곤가정 아동의 부모애착, 또래 애착 및 교사의 기대감이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꽃동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하나 (2011). 모-자녀간 정서적 친밀감과 형제 관계에 대한 모의 차별적 양육행동.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상환 (2003). 양육시설아동의 심리적 환경과 학교부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선택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수현, 김경희 (2005).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지능과 대인불안에 관한 연구. *아동과 권리*, 9(2), 277-296.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 Barone, L., Dellagiulia, A., & Lionetti, F. (2016). When the primary caregiver is missing: Investigating proximal and distal variables involved in institutionalized children's adjustment. *Child Abuse Review*, 25(6), 454-468.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I.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Dunn, J. (1988). Sibling influences on childhood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9(2), 119-127.
- Goossens, F. A., & Ijzendoorn, M. H. (1990). Quality of infants' attachments to professional caregivers: Relation to infant parent attachment and day care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ment*, 61(3), 832-837.
- Holmes, J. (1997). Attachment, autonomy, intimacy: Some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70(3), 231-248.
- Howes, C. (1998). Stability and continuity of child-caregiver and child-peer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9(2), 418-426.
- Howes, C., & Hamilton, C. (1992).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child care teachers: Stability and concordance with parental attachments. *Child Development*, 63(4), 867-878.
- Laible, D. J., Carlo, G., & Roesch, S. C. (2004). Pathways to self-esteem in late adolescence: The role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empathy, and social behaviors. *Journal of Adolescence*, 27(6), 703-716.
- Lionetti, F., Pastore, M., & Barone, L. (2015). Attachment in institutionalized children: A review and meta-analysis. *Child Abuse and Neglect*, 42, 135-145.
- Mota, C. P., Costa, M., & Matos, P. M. (2016). Resilience and deviant behavior institutionalized adolescents: The relationship with significant adults.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33(4), 313-325.
- Rutter, M. (1983).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 Some issues and some questions. In N. Garmezy, & M. Rutter (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pp. 1-41). New York: McGraw-Hill.
- Werner, E. (1993). Risk, resilience, and recovery: Perspectives from the kauai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4), 503-515.
- Stein, H. (2006). Commentary on “Seven institutionalized children and their adaptation in late adulthood: The children of duplessis”: Maltreatment, attachment, and resilience in the orphans of duplessis. *Psychiatry*, 69(4), 306-313.
- 1 차원고접수 : 2017. 07. 10.
수정원고접수 : 2017. 08. 12.
최종게재결정 : 2017. 08. 23.

The Effect of Psychological Rearing Environment on Resilience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Mediating Effects of Attachment with Institution's Peers and Attachment with School's Peers

Kim, Hyun-Jin

Kim, Sun-Hee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psychological rearing environment of institution on resilience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It also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s of attachment with institution's peers and attachment with schools's pee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logical rearing environment of institution and resilience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15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4th, 5th, and 6th grades residing in care institutions for children who are separated from parents due to family dissolution in Seoul or Busan.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te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SEM analysis were carried out using SPSS 22.0 and AMOS 23.0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sychological rearing environment of institution, attachment with institution's peers, attachment with schools's peers, and resilience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all showed significant relationship. Second, there wer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attachment with institution's peers on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rearing environment of institution and resilience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Third, there were no mediating effect of attachment with schools's peers on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rearing environment of institution and resilience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importance of respect, intimacy, and emotional support among institutional members in institutional systems to improve the resilience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Keywords: institutionalized children, psychological rearing environment, attachment with institution's peers, attachment school's peers, resilience